

신지식인이 됩시다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말중에서 '밀레니엄'은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할 시간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무언가 지금까지와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감할 수 있을 터이지만 '어떻게?'라는 물음에는 미래학자조차 명확히 꼬집어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신지식인'만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발상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혁신하는 사람을 신지식인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발한 마케팅기법으로 성공한 중국음식점 배달원이나 컴퓨터 정밀지도를 만들어 20년간 무사고배달 기록을 세운 초등학교졸업 학력의 집배원과 같은 사람들을 신지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기인들도 이처럼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신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재에 급급하기보다는 먼 장래를 내다보며 시대의 요청에 맞는 업무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종되어버린 공룡이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신지식인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합시다.

이사장





제32회 정기총회 소식

협회는 99년 2월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가져 1998년도 결산과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하고 협회운영과 관련된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임기만료된 임원 및 공석중인 임원을 선임하였다.

재적회원 295명중 총 18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池大燮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협회 회원들과 함께 한 지난 2년이 무척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느끼지만 반면 회원들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은 자책감이 든다. 지난 1년은 IMF시대를 맞아 나라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나 이는 더 큰 성장을 위해 겪는 아픔으로 여기고 守城의 위치에 있는 현실에 우선 만족하자. 그리고 우리 속기인들은 지금의 IMF시대가 주는 교훈을 거울삼아 타고난 근면성실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일해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어 成千永 이사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된 회의에서는 1998년도 회무 및 사업실적을 보고받은 다음 바로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1998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李東俊 회원으로부터 기본수입과 사업수입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발언이 있었으나 별 반대없이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함께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최황수 신임이사장 취임인사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협회 이사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도 보다는 과연 제가 본 협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명제를 생각할 때 책임감이 무겁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 계신 지대섭 회장님께서 본 협회에 대해서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회장님의 뜻과 지도역량을 받들어서 본 협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협회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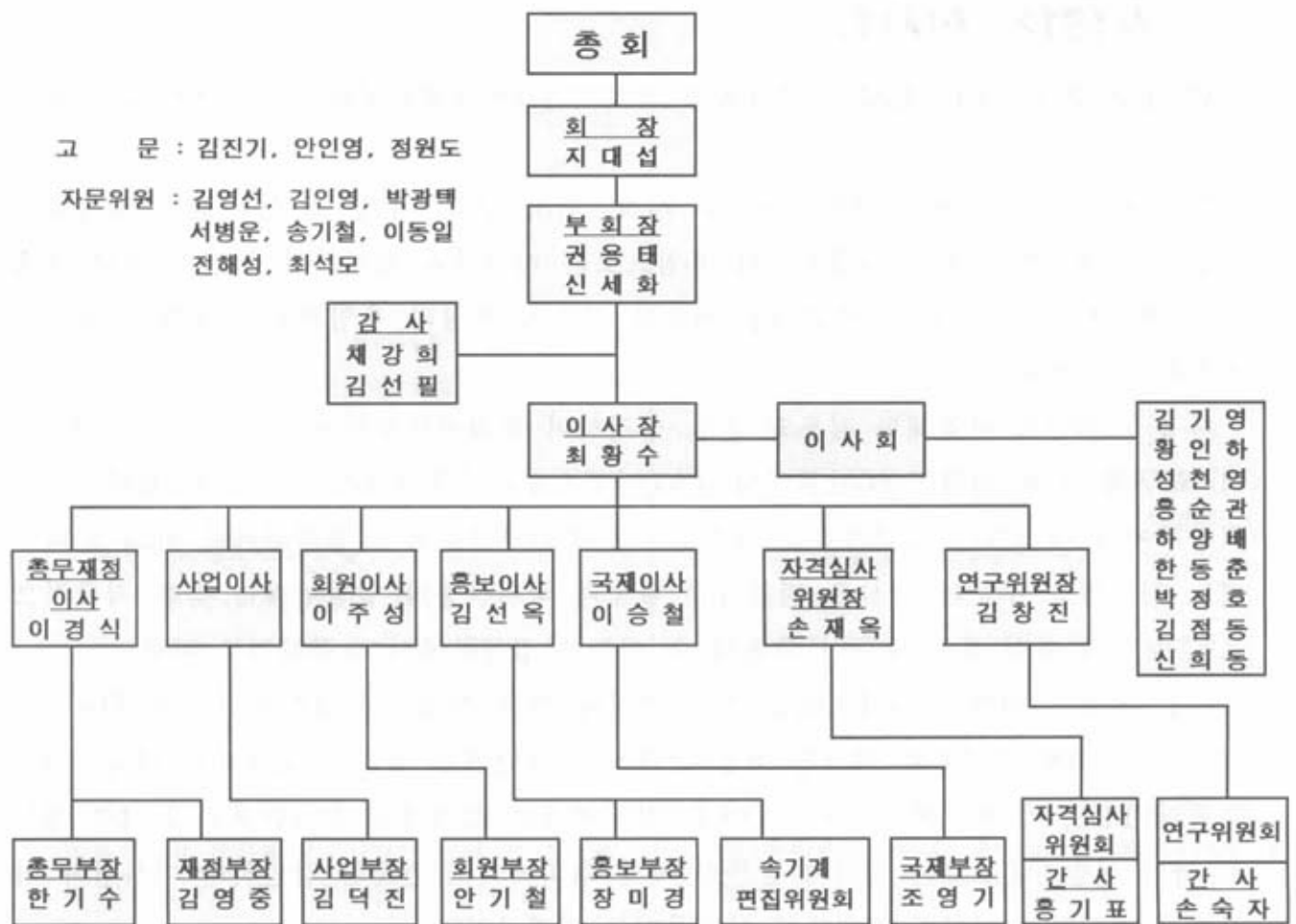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협회 운영과 관련된 정관조항을 개정하는 정관개정의 건 및 임원선임의 건이 통과되었다.

새로 선임된 임원에는 금년 2월로 임기만료된 부회장에 申世華 부회장이 유임되었고 이사장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 재직중인 崔滉洙 회원이 추대되었다. 그리고 공석중인 국제이사에 李承哲 회원이, 감사에 金善弼·蔡康熙 회원이 선임되었다.

임원 및 기구표

(1999. 4. 24. 현재)



제180차 이사회

1월21일 오전 10시30분 제180차 이사회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먼저 제32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1999년2월6일 토요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기로 하였고 다음 1998년도 결산에 관한 건을 그리고 199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각각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다음으로 임원개선의 건을 상정하여 임기만료된 신세화 부회장과 감사 2인(김선필·황인하) 그리고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의사를 피력한 성천영 이사장의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토론과정을 거쳐 신세화 부회장과 김선필 감사는 만장일치로 재선임하고 감사 1인의 선임과 이사장의 개선은 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였다.

제181차 이사회

3월31일 오전 10시 제181차 이사회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최황수 신임 이사장의 개의선언으로 시작, 먼저 임원·부장 개선의 건을 상정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신희동 사업이사의 후임으로는 이사진과 협의하여 무임소 이사 중에서 추후 선임하기로 하고 사임서를 제출한 김은숙 부장의 후임으로는 조영기 회원을 선임하기로 하였다.

다음 1999년도 사업계획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문화관광부에서 국고지원 금액을 조정 요구해 옴에 따라(6,9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감축금액이 큰 속기정보화사업은 회원부에서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재작성하여 문화관광부와 재협의하기로 하고 인터스테노 참가활동 부문의 예산은 민간외교 활동과 국위선양의 일환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협회 요구 수준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음 국제부 현안인 인터스테노 참가 결정의 건을 상정하여 중앙위원회(비엔나, 9/19~9/24)는 9월 정기국회 회기인 점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참가를 보류하고 의회속기사 부회의(IPRS, 미 보스톤, 7/29~8/1)에는 참가하기로 결정하고 참가인원은 3·4명 정도로 하며 선발기준으로는 영어에 능통한 자와 협회와의 공헌도를 감안하여 이사장과 이사가 지정하는 이사가 추천하여 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기타사항으로 50년사 책자는 4월 중순배부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받고 오전 11시55분에 산회하였다.

국제부
인터스테노관련

협회는 7월28일부터 8월1일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개최되는 의회속기사부회의(IPRS)에 김창진 회원을 단장으로 하여 김영중, 김미라, 윤태원 회원을 참석 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993년 터키 이스탄불 총회에서 결성된 인터스테노 내 국제의회속기사모임인 IPRS는 교육훈련, 관련주제, 업무능률향상 및 정보교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히, 이번 회의는 미국속기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IPRS와 합동회의를 개최, 공동관심사에 대해 각국 대표들과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PRS 참가를 계기로 세계 의회속기계와 미국 법원속기계의 현황과약과 각국 의회속기사들과의 민간교류 증진을 통한 국위선양은 물론이고 컴퓨터속기 관련 정보교환 및 Y2K문제에 대한 속기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정보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사업부
99년도 세미나

대한속기협회 99년도 세미나를 6월12일과 13일 양일에 개최할 계획이며 장소 및 추후일정은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속기50년세편찬위원회
한국속기50년사 발간

우리 나라 의정사와 함께 성장해 온 한국속기50년사의 발자취를 한 데 묶은 <한국속기50년사>가 발간되었다.

이 책에는 속기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우리말 속기의 창안 및 보급과정, 제헌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속기계의 모습이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법원이나 기업, 공공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속기현황과

대한속기협회의 창설과정, 활동상황 및 외국 속기계의 근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국속기50년사>에 관한 배부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협회(전화:02)788-2371~7)로 연락하기 바람.

총무부
집행이사간담회

최황수 신임 이사장은 99년3월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집행이사들과 협회 운영계획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회원들이 힘을 실어주어야 되며 집행이사들은 명분있는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이며 전 회원은 멀리까지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것과 협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99년도사업계획에 대한 방안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문화관광부보고

1999년도 협회 국고보조금 - 지난 3월 22일 99 법인 정기보고를 문화관광부에 7가지 서류를 갖춰 접수하였으나, 1999년도 사업계획 중 국고부분을 재조정하여 접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당초 협회에서는 1. 속기학술세미나 및 회의록작성 실무교육 2. 인터스테노 참가 3. 속기학술연구 4. 속기계 및 소식지 발간 5. 전국속기경기대회 6. 속기정보화사업 등의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 6,917만원을 요청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계획을 재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5,676만원으로 제출한 바, 현재 교부승인 예정으로 있다.

회 원 동 정

원로회원모임이 있었습니다

신임 최황수 이사장 주최로 99년3월11일 저녁 7시에 여의도 홍보석에서 상견례를 겸한 원로회원모임이 있었다. 이날 총 13인이 참석하여 이사회의 활성화 방안과 대한속기협회의 협회단일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체육대회 등산 등을 통하여 회원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할 것과 회원의 상호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식지를 자주 발행하고 주소록을 새로 정리하여 만들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참석회원 : 김진기, 안인영, 권용태, 신세화, 김영선, 최석모, 김인영, 전해성,
송기철, 김기영, 황인하, 성천영, 최황수

축하합니다

조신자(국회사무처 속기1과)/제4회 대한민국서예고시대전 일품입선(98.6.10)
제8회 공무원미술대전 입선(98.10.21)

김선옥(국회사무처 속기2과)/대통령표창(99.1.2)
고석광(국회사무처 속기1과)/국회의장상 표창(99.1.2)
간찬기(국회사무처 속기1과)/국회사무총장 표창(99.1.2)
송혜경/제10회 '책과인생'현상공모 수필당선(99.3)

이덕구(2급 준우승) }
권영찬(6급 우승) } 국우회주관(제10회) 제1/4분기 바둑대회(99.3.27)
김진기(6급 4위) }
안인영(8급 3위) }

박순필(국회사무처 속기2과)/A조 복식 준우승 입상 }
이준태(국회사무처 속기2과)/A조 단식 3위 입상 } 국회공무원테니스대회(99.4.17)

퇴직·수고하셨습니다

강수현(국회사무처 속기1과)/명예퇴직(99.4.2)
송효근(경상북도의회)/퇴직(99.4.6)
선재영(대구광역시의회)/퇴직(99.4.24)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경숙(국회사무처 속기1과)/(99.4.17)

발전을 기원합니다

송효근.선재영/(주)한백C&D 설립(정보서비스 전산업체)
연락처 053)744-2021,0201



낙 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걱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네 영혼의 슬픈 눈.

이 형 기

투고를 기다립니다!

속기협회의 「소식지」와 「속기계」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원동정과 각 지방의회소식, 회원들의 글 등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보내실곳: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1 국회의사대속기과내 대한속기협회홍보부

F A X : 788-3386~7(수신자: 서현숙)

T E L : (02)788-2375

시·X틀하기 전에

소식지 4호부터는 자체 편집·제작하여 수시로 소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이전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지속적인 발간이 가능합니다.

-홍보부-